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제1독서 역대기 하권 24, 18~22

화답송 시편 31(30), 3드르~4, 6과 7나과 8ㄱ, 17과 21ㄱ
(◎ 6ㄱ 참조)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1.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2.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3.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2독서 로마서 5, 1~5

복음 환호송 마태 5, 10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태오 10, 17~22

영성체송 마태 16, 2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성당(제주교구 용수성지)

주보 표지사진 공모

주 제 : 해당 주일 전례(복음)를 묵상할 수 있는 사진
응모 자격 : 부산교구 신자 누구나

사진 규격 : 가로×세로 3000픽셀 이상 컬러 사진(출품수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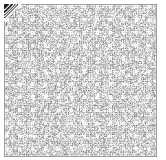
접 수 : 이메일(photo@catb.kr)

발 표 : 해당 주일 주보에 작품 게재(당사자 별도 연락)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www.catholicbusan.or.kr)

이 주간의 축일

♣ 3일 : 다도, 레오 2세, 마르코, 무스티올라, 무치아노, 바오로, 아나톨리오, 에울로지오, 이레네오, 토마스, 트리폰, 헬리오도로, 히야친토



오늘날의 순교의 삶



이 재 혁
루카 신부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을 지내면서 신부님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 순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김대건 신부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 끊임없이 떠남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신부님은 사제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났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부제품만 받은 채 고국을 위해 또 떠났습니다. 건강이 나뻐으나 선교사를 영입할 목적으로 1845년에 또 상해로 떠났습니다. 상해에서 서품을 받고서 또다시 고국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다른 신부님들의 입국을 위

하여 다시 떠났다가 1846년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그해 9월 16일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런 떠남의 삶은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삶입니다.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였기에 떠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선선히 다 버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김대건 신부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체포되신 후에 관장들이나 포졸들 그리고 대신들 앞에 설 때마다 “내 교의 진리를 들어보시오.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신인 만물의 조물주이시고, 상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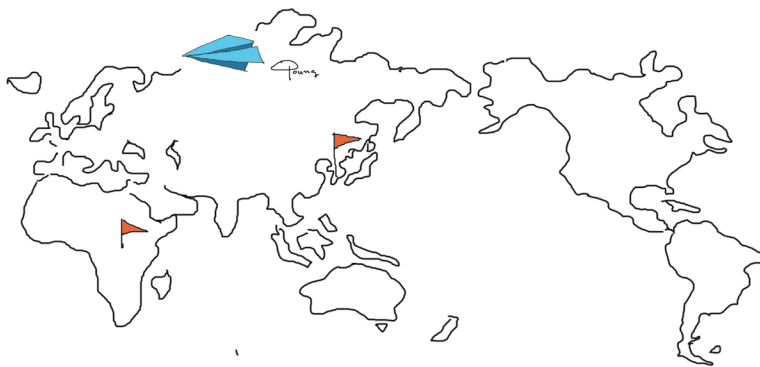
악하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게 공경을 드려야 하오. 관장님, 천주님의 사랑을 위해 고문을 받게 해준 데 대해 감사하오. 그리고 내 천주께서 당신을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하여 그 은혜를 갚아 주시기를 기원하오.”라고 선교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선교하는 삶은 지금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하느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필요하며 이것이 오늘날의 순교의 삶이 될 것입니다.

■ 안양성야교보성당 주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가톨릭부산 페이스북, 트위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catholicbusan
www.twitter.com/catholicbusan

지금까지



가까이, 조금 더

킬리만자로가 있는 탄자니아에 가고 싶어 종종 지도를 보며 손가락으로 탄자니아를 짚어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탄자니아까지 직선으로 11,000Km. 킬리만자로가 조금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꿈꾸고 있는 것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직 멀긴 하지만 생각만큼 멀진 않습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BBC부산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7.4(월)~5(화)
이재혁 신부(안양성야교보성당 주임)
7.6(수)~9(토)
김정웅 신부(성바오로성당 보좌)

문자참여 #2340

◆ 사랑이 있는 세상 ◆

월~목 12:15~14:00

7.5(화) 함께 하는 여정

(기초공동체 초대 토크 코너)

출연 : 모라성요한성당 미르암풍물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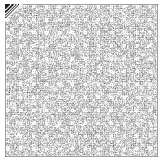
◆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

7.8(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

(영성의 집 제2부원장)

출연 : 계만석 프란치스코



나는 밀인가 가라지인가

이재웅 안토니오

아침 일찍 서둘러 버스를 타고 도착한 구포역의 구조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혼자 기차를 타본 지 20여 년이나 지났음을 새삼 느끼며,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출발지점인 삼랑진역을 향해 기차에 몸을 실었다. 목주를 손에 쥐어 채 바라본 창밖의 모습도 예전의 기억과는 너무나 변해 있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꿈인가? 환시인가? 피범벅이 된 예수님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아니 함께 있었다. 가혹한 채찍질과 십자가 무게에 짓눌린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다. 그것도 세 번 씩이나...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너무나 크고, 덩어리로 뭉쳐진 이기심, 죄의 생각과 행위가 주님을 피명 듣게 하지만, 그분께서는 십자가 형상의 그 가시덩어리를 사랑으로 껴안고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또다시 일어나셨다. 주님의 십자가... 결국 내 모습이였다. 주님이 굽어지신 그 무거운 십자가는 다름 아닌 바로 나였던 것이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님께서 추기경이던 시절 예수님이 세 번째 넘어지셨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글이 뇌리를 스쳤다. “주님, 주님의 교회는 물이 가득 차 가라앉으려는 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밀밭에는 밀보다 가라지가 더 많아 보입니다.” 지금 목주를 손에 쥐고 있는 나는 밀일까, 가라지일까?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내 것만 찾아 달려온 지난날이고, 그분의 길이 아닌 샅길을 따라 걸어왔음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밀이고 싶지만, 가라지가 아니고 말할 수 없었다. 밀밭에 염치없이 들어온 가라지이지만, 잊고 지낸 것이 분명했다. 시복시성을 기원하면서 걷는 중에도 이런 생각

이 가지지 않았다. 가라지가 스스로 밀이 될 수는 없을까? 감부기가 보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의 자명한 이치는 불가능이었다. 그분 능력에 힘입어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했다. 절반쯤 걸었을까. 어느 순간 위안과 평화의 그분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마태 13, 38~39)

주님! 염치없지만 저는 가라지가 아니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라지여서 제 부모까지 가라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신께서도 손수 뿌리신 씨앗이 가라지가 아니길 바라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가라지 같은 모습일지라도 꼭 밀의 본 면목을 되찾을 것입니다.

■ 교구평협 부회장 hadan23@naver.com



나를 바칠 그 무엇 - “내 이름 때문에”(마태 10, 22)

나를 바쳐 사랑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까? 오롯한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무엇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의 그 젊은 사제처럼 기꺼이 선혈을 뿌려 세상을 씻어낼 용기를 허락하는 그 무엇이 나와 나와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의 죽음은 그 개인의 결단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를 키워낸 가족과 그때의 교회가 그의 결단을 뒷받침하고 지지하고 안타까워해 줄 수 있었으므로 가능했다고 본다.

그를 키워낸 당시의 공동체와 당시의 교회와 당시의 이웃들이 이런 삶과 죽음을 거룩하게 여겼으므로 그의 희생은 그 개인만의 헌신이 아닌 온 교회의 업적이 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투신을 뒷받침해 줄 사회적 정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의인을 존중하고, 희생을 거룩하게 여기며, 투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적 합의를 우리는 잃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의 김대건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른다. 딱 나 자신 만큼의, 딱 우리 자신 만큼의, 딱 우리 공동체만큼의 의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치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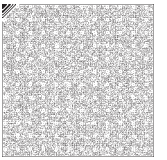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사고 수습에 헌신했던 김관홍 잠수사가 6월 17일 오전 숨을 거둔 채로 발견됐다. 김 잠수사는 이날 오전 자택 인근의 화원 비닐하우스 안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뒤 7일 만에 수중 선체 수색 작업에 합류해 두달 반 넘게 구조 작업을 했던 김 잠수사는 지난해 12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수습 현장의 온갖 혼선과 불합리를 증언했다. -중략- 잠수병을 앓은 김 잠수사는 잠수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함께해 왔다. -중략- 그는 숨진 채로 발견되기 전날 밤에도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 2016. 06. 17자 기사

■ 김상호 신부(신선성당 주임) airjazz@hanmail.net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신학 공부

박 경 완 세실리아 / 금정성당



천주교 신자가 되리라 생각도 못했던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입교하게 되었고 처음엔 의무감으로 주일미사를 참례했지만, 그 의무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년째 냉담 중이던 3년 전 이맘때, 작은 애가 하룻길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몸의 상처는 차츰 아물었지만 아이의 정신적 충격은 쉽게 아물지 않았고, 이 아이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했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기도였습니다.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자고 있는 아이 손을 꼭 잡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는 예전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했던 아이의 건강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며, 하느님의 은총이 언제나 저와 함께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미사에 참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서 내용도 어렵고 미사 예절도 이해하기 힘들고, 구약의 하느님은 권위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할 때, 주보에 난 신학원의 ‘이사야서 특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 부리나케 신청했고, 특강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신부님의 명쾌한 강의와 그 신심이 오롯이 전해진 소중한 시간이었고, 단 세 번의 강의를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른 강의를 있는지 찾아 2년의 정규과정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졌는지 제대로 알고 싶단 생각에 앞뒤 생각 없이 등록부터 했습니다. 막상 등록하고 나니, 일주일에 세 번 그것도 저녁 시간이

라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노파심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때로는 저녁을 거르고 일찍 교실에 가 그 날 배울 내용을 미리 읽게 되고,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처럼 신부님과 교수님의 강의에 빠져들었습니다. 12년, 아니 그 이상 학교를 다녔고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이런 설렘은 처음인 듯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가졌던 신앙의 의문들이 하나씩 이해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가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가 버렸지만, 오히려 조선의 문장가 유한준의 글에 격하게 공감하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전에 알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지금 이 순간 참 행복합니다.

부산가톨릭신학원 문의 : 464-7591
cafe.daum.net/catholic-sinh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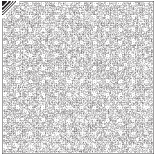
구약성경을 읽다보면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다 돌연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런가요?

판관 6, 11~13에서 기드온은 주님의 천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14절에 갑자기 주님이 등장해 기드온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20절에 다시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대신해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목을 읽다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주님과 주님의 천사를 번갈아 가며 등장시키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의 천사를 만난 이들이 주님을 뵈었다고 말하거나,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도 하고, 주님의 천사가 말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창세 16, 7~14; 21, 15~21; 22, 1~19; 31, 1~16; 탈출 3장; 판관 6장, 13장)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주님과 주님의 천사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주님을 직접 뵈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주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과 주님을 구분하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말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행동이나 말입니다. 오래된 성경 번역본인 칠십인역 그리스어 구약성경은 판관 6, 14 등과 같이 주님과 주님의 천사가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모두 “주님의 천사”가 등장한 것으로 바꾸어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주님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듯합니다.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6월 26일(일) 절두산, 새남터성지
주임 : 임영민 신부, 회장 : 이해규 요셉

양산



6월 26일(일) 거제 지세포성지
주임 : 권순도 신부, 회장 : 박경규 토마스

두왕성베드로



6월 24일(금)~26일(일) 본당
주임 : 조성제 신부, 회장 : 이재현 모세

수정



6월 26일(일) 본당
주임 : 이종만 신부, 회장 : 김종률 필립보

길천



6월 26일(일) 본당
주임 : 박태식 신부, 회장 : 허윤훈 미카엘

해운대

남산성당,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 초여름 밤의 음악콘서트



남산성당(주임 : 김정호 신부, 회장 : 장두채 루카)은 지난 6월 21일

(화) 19:30 본당 성전에서 문화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제 22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콘서트에서는 로사리오 성가대, 오카리나, 국악, 우쿨렐레 공연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있었다.

가톨릭선교마라톤회, 창립 10주년 행사



가톨릭선교마라톤회(지도 : 오중섭 신부, 회장 : 김봉출 로마노)는 지난 6월 18일(토)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서 생태공원에서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다함께 선교 달리기 행사를 실시했다.

남천성당, 루카복음 스토리텔링 대회



6월 26일(일) 15개 팀 참가
주임 : 이찬우 신부, 회장 : 흥관희 요셉

우정성당, 신약성경 이어쓰기 봉헌



6월 19일(일) / 주임, 보좌 신부, 수녀, 사목회 위원, 11개 제 단체 회원 필사 참여
주임 : 김성환 신부, 회장 : 이상호 엘리지오



7월 : 니코스트라토, 루치아노, 펠루아인, 보스웰, 빅토리오, 빌레발도, 사투르니노, 심포리아노, 아스티오, 아폴로니오, 에르콘고타, 에텔부르가, 오도, 일리디오, 제르마노, 카스토리오, 클라우디오, 파피오, 판레노, 팔라디오, 페레그리노, 펠릭스, 폼페이, 헤다, 헤시키오

지난 6월 23일(목) 교구청 마당에서 '교구 장의 차량 축복식'이 황철수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장의 차량은 사회사목국 선종사업부에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장의 차량 및 장의 용품 문의 : 010-3560-5854

부산바다의 별레지아, 꼬미씨움 서기 연수



6월 19일(일)
목포 산정동성당, 나주 순교자기념성당
지도 : 장재봉 신부, 단장 : 김정균 노엘

부산교구 소속 군중교구 사제 인사 이동

성명	전임지	새임지	전입일자
정태화	성요셉성당(육군 부사관학교)	남성대성당(종합행정학교)	7.8(금)
송재현	충용성당(육군 제8군단)	하상바로성당(육군 제53사단)	"
정한시	철벽성당(육군 제23사단)	성례오성당(특전사령부)	"
최혁	7월 1일(금) 군중신부 임관	토성대성당(공군 제3훈련비행단)	"

교 구

7월 부산교구 혼인 강좌 안내

· 7.17(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 7.24(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참가비: 1쌍 4만원(선착순 50쌍) / 혼인강좌 교육부
 사전 접수: 462-1870(당일 접수 받지 않음)

2018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

· 7.30(토) 14:00~31(일) 13:00 · 양산 영성의 집
 대상: 사제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2, 일반
 마감: 7.19(화) / 문의: 629-8760(성소국)
 ※ 2018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할 지방자는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공원

미사: 매주 토요일 11:00 3층 경당
 - 셔틀버스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문의: (055)374-8732~3(관리사무실)

본 당

우정성당 사무장(남), 사무원(여) 구함

자격: 회계, 컴퓨터(한글, 엑셀)능숙, 운전가능(1종보통)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신부님추천서(타본당 신자)
 서류 제출: 7.10(일)까지 / 문의: (052)243-4568

해운대성당 관리원 구함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신부님추천서
 마감: 7.10(일) / 인원: 1~2명
 문의: 746-5881, 010-6666-3347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음 후원회 미사

김해: 7.4(일) 11:00 임호성당
 울산: 7.5(화) 11:00 야음성당
 문의: 782-0765

영상과 음악이 있는 목주기도 100단

· 7.4(일)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문의: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미사

· 7.5(화) 11:00 · 중앙성당 / 대상: 전신자
 주례: 장세명 지도신부 / 문의: 466-2290

지체장애인복지회 후원회 미사

· 7.5(화) 14:00 · 부곡동 로사리오카리타스 4층
 주례: 안상현 신부 / 문의: 517-0613, 010-3660-2636

제81차 부산선택주말

· 7.15(금) 19:30~17(일) · 마리아피정센터
 참가비: 10만원 / 대상: 36세 미만 미혼 남녀
 접수: cafe.daum.net/pusanchoice (7.8(금)까지
 선착순 마감) / 문의: 010-7577-4571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음이 성령기도회
 · 7.4(일) 19:30 전포성당
 · 7.7(목) 20:00 울산 북산성당
 - 수요치유기도회
 · 7.6(수) 11:00~16:00 / 중식 제공
 - 교구 철야기도회
 · 7.8(금) 23:00~다음날 04:00
 강사: 윤희동 신부(도시빈민사목)
 - 교구 성령목상회
 제410차(젊음이): 7.8(금) 11:00~10(일) 17:30
 제411차(일반): 7.15(금) 11:00~17(일) 17:30
 제412차(일반): 7.22(금) 11:00~24(일) 17:30
 회비: 10만원(일반 교재비 3,000원) / 당일 지참
 10:0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철야기도회(신심미사)
 · 7.7(목) 22:00~02:00 울산 영성의 집

베아따그레고리오성가단 성음악 미사

· 7.5(화) 19:30 · 전하성당
 남, 여 단원 모집 / 문의: 010-6562-0577(단장)

마리아사제운동 울산 다락방기도 및 월미사

· 7.6(수) 14:00 · 북산성당 소성전
 지도: 박진성 신부 / 문의: (052)201-6505

부산ME 소개모임

· 7.18(일) 20:00 · 남천성당
 · 7.25(일) 20:00 · 연지성당
 339차 ME 주말: 7.22(금)~24(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수시 / 문의: 465-1010
 010-2837-8814, www.mekorea.or.kr/bs

제389차(자매), 제390차(자매) 꾸르실료 안내

제389차(자매): 7.21(목)~24(일) / 마감: 7.11(일)
 제390차(자매): 7.28(목)~31(일) / 마감: 7.11(일)
 문의: (055)388-5734, 5733(팩스), 본당 간사

군중후원회 자녀입대자 등록

내용: 성명(본당, 세례명), 부모님 전화번호, 부대주소
 (자세히), 제대일 / 활동: 위문품, 군생활 관련 문의
 접수: 751-3610(부산), (052)274-3608(울산)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7월 4일은 유창호(토마) 신부님의
 선종일입니다.(2005.7.4. 선종)

주보 편집실에서는 여러분의 진솔하고,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열두광주리'에 담으려고 합니다.
 신앙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체험들
 을 편안한 마음으로 글로 적어 보내 주십시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jubo@catb.kr)

읽고 · 보고 · 듣고

보잉보잉

■ 공연 8월 21일(일)까지 (월요일 공연 없음)
 ■ 장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시간 화-금 20:00, 토-일 16:00, 19:00

몽타주

■ 공연 8월 28일(일)까지 (월요일 공연 없음)
 ■ 장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 시간 화-금 17:00, 20:00, 토-일 17:00, 20:00

발칙한 로맨스

■ 공연 9월 25일(일)까지 (월요일 공연 없음)
 ■ 장소 조은극장 스타홀
 ■ 시간 화-금 19:30, 토-일 15:00, 18:00

문의
1588-2757

<p>(주) 씨피여행사 1. 9/26 발간 성지순례 13일 395만원 2. 10/4 스페인 일주, 서유럽 순례 16일 3. 10/7 스페인(바르셀로나 포함) 14일 4. 10/24 이태리, 스페인 13일 405만원 가톨릭센터(본사)담당 010-3837-6434</p>	<p>(주) 나웅 그린세움 종합건설(주) 박병주(안드레아) 종합건축 / 리모델링 / 인테리어 공사 TEL. 647-0404 H.P. 010-4845-4819</p>	<p>주단, 포목, 훈수감 도산매, 한복전문 협성주단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 270호 (7호문 안쪽) 646-1123, 918-2246 010-3594-2137</p>	<p>스마일정경우베노기과 정경우(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 / 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www.bmu.co.kr 744-8181 (센텀신세계 백화점 옆) 상담 010-5616-8600</p>	<p>서울성형외과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국내 최대의 성형외과 그룹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정형(7.이퀴나스) http://seoulspl.co.kr 818-3131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앞</p>
<p>동국주단 부산일보 강소상인 한복 변관현(시몬) 최상희(안나) (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643-7070, 010-9243-5776</p>	<p>미래고속관광(주) 관광버스 30대, 결혼식 하객 수송 해외/국내 성지순례 대표: 우중환(리차드), 임애경(엘마) T. 055-333-6300 010-9809-6300</p>	<p>혼레칭 교우 10% DC 전통과 신뢰의 웨딩 명가 SINCE 1990 서구식, 야외, 전통혼례, 실내 야외 촬영 구절, 공공기관, 성당, 교회, 뷔페 예식 전문 서정자(마르타) 807-2025 http://www.honre.com(총회사 입구)</p>	<p>웨딩연출 & 출장뷔페 웨딩스드메 하우스웨딩 성당예식전문 세인트벨라 김영란(루시아) 553-1792 010-2353-6484 http://blog.naver.com/pop1747</p>	<p>서부지중해 4개국 크루즈 성지순례 9/20(화)~30(금) 10박 11일 이태리, 프랑스, 모나코, 스페인 경비: 내측 548만원, 발코니 598만원 *1인실(싱글룸)로도 예약 가능 02-2281-9070(가톨릭신문사)</p>

6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 8일: 그림밭도, 라이문도, 순니바, 아우스피치오, 아우스피치오, 칠리아노, 아렐라, 콜로만노, 토트나노, 프로코피오, 프리스킬라, 하드리아노 3세

가톨릭센터 우쿨렐레교실 초급반 모집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기는 작은 기타
 개강 : 7.8(금) 오전반(10:30), 오후반(18:00)
 강사 : 김보승(Sus4 기타학원 원장)
 수강료 : 15만원(교재 포함), 4개월 과정
 · 가톨릭센터 4층 교육실 / 문의 : 462-1870

신학대학 주방 직원(계약직) 구함

대상 : 여(조리원) / 문의 : 010-7279-2147,
 519-0437(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
 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교육 · 모집 · 기타

‘소·화·제’ 영화 힐링 캠프(영화 피정)

내용 : 소중한 사람과 화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일일 피정(단체피정 문의 환영)
 · 7.16(토) 10:00~16:00 · 일광 삼덕수도원
 일정 : 성체조배, 영화 피정, 나눔, 미사
 문의 : 010-3762-1670(폰네펀아프란치스코수도회)

와서 아침을 들어라

· 7.9(토) 15:30~10(일) 16:00 · 성심영성센터
 내용 : 아빠들의 요리학교(주일 점심 가족 초대)
 문의 : 581-3114(예수성심전교수녀회)

MBTI와 마음여행(심화)

· 7.16(토) 10:00~17:00 · 성심영성센터
 내용 : 자신과 가족의 강점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심리적 게임 인식을 통한 성숙한 관계 형성
 문의 : 581-3114(예수성심전교수녀회)

강서노인복지관 놀이봉사단 마실 단원 모집

교육 지원 후 봉사활동 10회 실시
 대상 : 55세~65세 어르신 / 문의 : 972-4851~2

강서노인복지관 이미용서비스 봉사자 모집

어르신들께 이미용서비스 제공
 문의 : 972-4851~2

살레시오독서미디어교실 2학기 모집

초 1~2 : 책과 함께 놀아요(50분/주1회/필독서 총12권)
 초 3~6 : 인문교양독서(80분/주2회/필독서 총8권)
 중 1~2 : 인문독서(90분/주1회/필독서 총8권)
 접수(신입생) : 7.4(월)~16(토)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집, 남천동)

삼성산성지 7월 무료치유대피정

· 7.8(금) 18:00~10(일) 15:00
 문의 : 010-7375-4600 / 09:00 서면 출발

골롬반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 7.10(일) 14:00~17:00 · 골롬반 평신도선교사센터
 문의 : (02)929-4841, www.columban.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7.19~22, 7.25~28, 8.1~3, 8.5~8,
 8.10~12, 8.14~16 / 문의 : (064)796-9181
 내용 :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대상 : 개인 가족, 본당단체 등

제주 먼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자비의 희년 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걷는 제주
 성지순례, 미사, 올레길, 오름 트레킹, 평화, 역사탐방
 · 7.20~22, 7.27~29, 7.31~8.2, 8.5~8
 8.10~12 / 문의 : (02)773-1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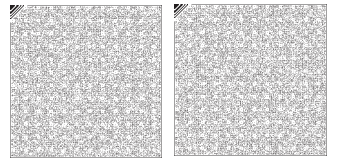
2016 가톨릭대안좋은학교 연수

· 7.23(토)~24(일) · 양업고등학교 토마스관
 대상 : 좋은학교(Quality School)에 관심있는 학
 부모님들 / 회비 : 6만원(당일 현장납부)
 접수 : 7.13(수) 10:00부터 90명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 양업고 홈페이지 연수접수 팝업창
 문의 : (043)260-5078
 ※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도 함께 합니다

제45차 5차원전면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

· 8.1(월)~3(수) · 구미선산청소년수련관
 대상 : 초, 중, 고, 대학생(선착순 30명)
 참가비 : 28만원 / 다음 카페 유아청 참조
 문의 : 010-3883-7004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7.10(일) 14:00	부산 본원	010-9113-4997
한국외방선교수녀회	7.10(일) 14:00	부곡동 본원	010-9319-1690
살레시오회	7.23(토)~24(일)	태안 살레시오회 피정센터	010-9487-9182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여름성음악연수

· 7.25(월)~28(목) · 가톨릭대성심교정
 주제 : 시간전례 · 미사전례성가
 내용 :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지휘, 성악, 음악
 기초이론 및 성음악작곡, CCM(공통-재즈화성학/
 전공-보컬실기, 피아노반주법)-전공과목 택일
 교수 : 박원수 신부, 최효영 신부 외 15명
 접수 : 7.13(수) 까지(선착순 150명)
 연수비 : 30만원(우리 1002-044-623614 박재광)
 숙식, 교재비 포함 / 문의 : 010-4513-7605,
 010-6395-1181, www.cecilkorea.org
 주최 : 서울대교구성음악위원회, 주관 : 가톨릭세
 실리아성음악협회

성모님과 함께하는 6일 침묵치유피정

1차 : 8.1(월)~6(토) 아룬의 집(39만원)
 2차 : 8.7(일)~12(금) 왜관 베네딕도피정의집(35만원)
 강사 : 안토니오 신부(인도 요셉빌 신부 후임)
 준비물 : 성경, 미사도구, 필기도구 / 대상 : 누구나
 문의 : 010-2881-9396, 010-2281-5689

꽃동네 젊은이 성령피정

· 8.5(금) 13:00~7(일) 16:00
 · 음성꽃동네사랑의 연수원
 치유미사 : 꽃동네 오웅진 신부
 대상 :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치유받
 고 싶은 젊은이(치유면담, 찬양, 젊은이프로그램)
 대상 : 중학생~35세 미만 / 문의 : 010-6309-1987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9.26(월)~10.8(토) · 발간 순례 13일 395만원
 · 10.24(화)~11.5(토) · 서유럽, 스페인 13일
 (로마, 루르드, 산티아고, 파티마 405만원)
 국내선 포함, 독일항공 / 문의 : 010-3837-6434

<p>인간존중 생명사랑</p> <p>부산가톨릭대학교</p> <p>201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p> <p>■ 원서접수 7월 1일(금)~8일(금)</p> <p>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p.ac.kr) 참조</p>	<p>부산성모병원 개원 10주년 이벤트</p> <p>“부산성모병원” 6행시 및 이용후기 공모전</p> <p>공모기간 : 6월 27일(월)~7월 22일(금)</p> <p>시상내역 : 피부관리권 및 종합건강검진권 증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p> <p>문의 : 933-7027(기획실) / www.bsm.or.kr</p> <p>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p>	<p>가톨릭센터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p> <p>사진, 감성에 디자인하다</p> <p>“사진교실” 초급반 개강</p> <p>개강: 7월 14일(목) 19:00~21:00(매주 목요일)</p> <p>강사: 최경현(신라대 외래교수)</p> <p>과정: 15회 과정 수강료 20만원</p> <p>접수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p>
--	--	---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p> <p>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p> <p>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친환경 베이커리카페(0~28개월 대상) 핑크코끼리</p> <p>구서점 구서역 3번 출구, 이마트 맞은편 518-3217 황하나(베네딕다)</p> <p>장산점 장산역 13번 출구, 엘리움빌딩 930-0553 하희림(모니카)</p>	<p>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p> <p>일산자동차매상사</p> <p>대표 조남철(테레오) 010-3573-8797</p> <p>르노삼성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SM6, SM세리즈, QM세리즈)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p>	<p>이명 TSC기술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난청 무료 청력검사관리)</p> <p>소리대장간(동래점)</p> <p>대표, 고두 리(안젤라) 010-3569-2692</p> <p>시창역 7번 출구</p>	<p>(주)석경</p> <p>전문건설면허법인 주거, 상업, 인테리어 전문업체 의료, 업무공간 심채영(메가), 박승국(라자로)</p> <p>해운대구 중동 동일아파트상가 105호 744-1217 www.seokkyung.com</p>
<p>수맥 흙(돌)침대</p> <p>불면증 · 허리통 · 찌뿌둥 임응승 신부님 수맥 지도</p> <p>문의 1588-5335</p>	<p>이삿짐은 우리트렌스로</p> <p>582-1414 582-8555 010-4042-8662</p> <p>대표 : 변성만(요한) · 권명숙(로사리아)</p>	<p>재활전문 수요양병원</p> <p>재활 · 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p>	<p>갑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p> <p>김용기내과</p> <p>[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 용 기(T. 이쿠나스) 외 부산대학병원 출신 전문의 7명 www.endocrine-clinic.com 상담 및 예약 245-7100</p>	<p>ISO 9001, KGMP 품질 인증 업체 독일 직수입 디지털 보청기 전문</p> <p>독일보청기</p> <p>맞춤형(고악형) 당일 주문 제작 및 즉석 수리 김 무 나(글라라) 803-5588, 1871</p> <p>서면 지하철역 6번 출구 1층 본홍재 건물</p>